"세계 최고 융·복합 스마트항 만들터"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정책간담회

고객 최우선·현장 중심 마케팅·상생 강조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최선책 모색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이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과 자동화 부두 구축사업을 통해 광양항을 세계 최고의 융·복합 스마트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취임 후 언론사와의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광양항 수출·입 물동량은 2억1,100만 톤으로 국내 1위이고 총물동량은 2억7,500만 톤으로 국내 2위인 대한민국 제1의 관문항이다"며 "포스코의 철강과 여수의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화물 다양화라는 장점을 살려 세계 최고의 최첨단 융·복합 허브항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사장은 출범 11주년을 맞아 항만물류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 최우선주의,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마케팅, 지역과의 상생 강화를 강조했다. 박 사장은 먼저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고객들이 여수광양항에 오면 정말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희망을 주는 여수·광양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물동량이 80만 TEU에 불과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며 "우리 직원들을 발로 뛰는 영업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화주·이용자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어려움이나 걸림돌을 찾아 해결하고 광양항에 들어오는 선사들을 10개 정도 집중적으로 방문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210만 TEU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여수 해양고와 광양 항만물류고 등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방학에는 학생들에게 항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친환경 탄소중립 항만으로의 전환, 해양폐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정화활동, 안전한 항만 조성,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통한 더 좋은 일자리 확대 등으로 세계로 50년, 미래로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을 만들어 가겠다"며 설명을 마쳤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에 박 사장은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 기재부와 손잡고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정원산업 연계 뉴딜 선도 선순환 녹색경제 육성"

2022 새해설계

허석 순천시장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민 공동체의 힘으로 순천의 가능성을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새해 시정목표를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로 선언하고 5대 분야별 시민 체감 시책을 제시하며 2022년을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16일 밝혔다.

우선 2023정원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동천과 봉화산을 축으로 도심에 일상 속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산업과 연계한 그린 뉴딜을 선도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쾌적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상시 대응 인력체계 구축과 재택치료센터 설치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방침이다. 순천형 2050탄소중립정책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E-모빌리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대폭 보급하고 도심숲 등 탄소흡수 지대를 조성한다. 생활에서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해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순환하는 녹색경제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녹색산업 및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실물경제의 V자 반등을 준비한다. 1,300억 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량을 200억 원 이상으로 늘려 골목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3만 평 확대하고 100명 이상의 농가 인구 정착 유도로 농촌 활성화를 지원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체육·교육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골목마다 볼거리가 있는 오픈형 가든 뮤지엄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킬 예술의 전당, 국립민속박물관 호남 분원, 국립 디지털 생태체험관 유치로 수준 높은 문화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감염병의 악조건에서도 시민의 참여로 남다른 성과를 거뒀고,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가능성을 발휘했다"며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민 공동체의 힘으로 순천의 가능성을 기회로 바꾸어 2022년을 힘차게 도약하자"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광양 스마트타운 챌린지 착수
총 40억 투자 6종 서비스 구축

광양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 12월까지 스마트 서비스 6종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촉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은 규모의 지역에 최적화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도입하는 국토부의 전략사업이다.

광양시는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해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 스마트 서비스 3종(스마트 쓰레기통, 폐지 수거시스템,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고도화) ▲대기오염 최소화 실천 서비스 2종(공유 모빌리티, 스마트 클린쉼터) ▲시스템 간 통합·연계용 에코 플랫폼 1종 등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한다. 아울러 금호동민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해 수집된 캔, 페트병 등의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판매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상반기 스마트 서비스 6종 구축과 상호 연계, 문제점 개선 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옥 정보통신과장은 "이 사업이 광양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등의 단계적 해결과 저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한 광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동백가치'가 한려지구에 개점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문 열었다

15개 기업 127개 품목 입점

여수시 '동백가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 최근 도시재생뉴딜사업 한려지구에서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박현식 부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한려지구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라운딩이 진행됐다.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여수시지부에서 운영하는 '동백가치'는 사회적경제 15개 기업 127개 품목이 입점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운영된다.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랑방도 운영하고 있다.

김해룡 지부장은 "앞으로 가성비가 높고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확대 취급할 계획이다"며 "공동브랜드 개발과 패키지, 소포장 꾸러미상품 판매를 도입하고 판매 부스 라이브방송 등 비대면 홍보를 활용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시의회, 경도 숙박시설 축소안 "미흡"

여수시의회가 생활형숙박시설 규모를 일부 축소한 미래에셋의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추진계획안에 대해 축소 규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6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경도 개발사업과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가 비공개로 가졌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8월 전남도에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심의를 신청했을 당시보다 숙박시설의 층수와 규모를 줄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체 동의 층수를 2층씩 낮췄고 경도대교 초입 부분은 21층, 국동항 방면은 25층으로 낮춰 총 63실을 축소하는 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소안에 대해 시의원들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큰 폭의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송재향 의원은 "이 정도 규모 축소로 경관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다. 이 정도로는 경도 연륙교 예산 통과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송하진 의원은 "층수를 줄였을 때 여수 전체 경관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아야 했다.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보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목적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광지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과연 여수 관광에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곡성 고달면 한희농장, 성금 기탁

곡성군 고달면은 최근 한희농장 김덕민 대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 대표는 고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소득가구 집수리 봉사 및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 대표는 "작은 성금이나마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김수경 고달면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벌교초 학생들, 바자회 수익금 기부

보성군 벌교초 학생들과 학부모회가 최근 7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벌교초 학생들과 학부모회에서 '바자회'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이다.

김인옥 교장은 "바자회가 학생들에게는 사회성과 경제관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었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유나 학생회장은 "바자회를 통해 돈도 벌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합동교외생활지도 강화

순천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과 건전한 겨울방학을 위해 2월 말까지 '합동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경찰서, 자율방범 순천시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는 교외 생활 지도에 나섰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분담해 감염병 예방 수칙과 교통안전 교육, 비행 및 범죄 예방,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주된 내용으로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 다중이용 시설 방문 및 이용을 지양하도록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용덕 순천교육장은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지역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